

란 워드 (미국, 시카고)

강하라, 순종하며 그 땅을 정복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7)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전체 UBF 공동체와 함께

지난 4 년동안 윤모세 목사님을 세계대표로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모세 목사님께서서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동안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신실하게 나누어 주시고 영적인 방향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의 리더쉽하에 섬기고 그의 친구가 된 것은 저희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저는 이제 UBF 사역의 차기 세계대표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아메리칸 드림의 추종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그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목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제가 감사드리는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저에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故 이 사무엘 박사님과 이은혜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18 년 동안 옆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나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M. Sarah Barry 께서는 40 년 넘게 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영적지원은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원래 목자님이신 김아브라함 목자님과 김사라 사모님, 전요한 박사님과 전사라 사모님, 양마가 목자님과 양안나 사모님, 최이삭, 레베카 선교사님, 그리고 Mark Vucekovich, Teddy Hembekides, Kevin Albright 목자님들, 전체 시카고 UBF 공동체와,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주님안에서 친구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멘토들이신 Wheaton College 의 Scott Moreau 박사님과 John Armstrong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37 년 동안 여섯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정을 꾸리면서 저를 지원해준 사랑하는 아내 Dervilla 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여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놀라운 자녀들인 Sarah, David, Rebekah, John, Danie, Joshua,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도 항상 나에게 활력을 주는 손자들인 Abigail, Amelia 그리고 Penelope 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여호수아 1 장 7 절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시고 광야에서 40 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위대한 목자였지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밭을 딛는 모든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지만 그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도록 명령하시고 강해지는 법을 가르치시며, 경고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모세는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신 31:6)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신 31:7,23).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1:6-9 에서 세 번 반복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약하고 두려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용기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왔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세의 믿음과 정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끌 준비가 완전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약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이자 창시자였습니다. 어떤 후계자도 그에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최고 리더가 되는 것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요구와 불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강한 적, 즉 외부의 적군과 내부의 미묘한 이상승배적인 문화의 유혹들에 맞서야 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도전이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지시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의 강한 손아귀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힘의 근원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8a 절에서 “이 율법책을 항상 네 입술에 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은 성경에 안에 있는 모세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의 한 페이지에 쓰여진 글자 그 이상입니다. 성경안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신, 즉 그의 권능과 사랑, 그의 거룩하심과 심판하심, 구원하시는 은혜, 그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공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용서하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거하면 강하고 담대하며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의 생각들이나 사람들의 조언이나 세상의 소음위에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에 불과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항상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자신의 뜻대로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출 19:6).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고(골 1:13) 그의 백성을 통해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신 전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위대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UBF 1세대 지도자들은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의 선교사를 90개국 이상에 파송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자립 복음 사역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특수전진부대처럼 지금 굳건히 서 있습니다. 1세대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세대가 UBF 내 각 사역의 역사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사역들은 여전히 캠퍼스와 문화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각 나라 주류사회의 지도자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소수의 리더들을 통해 복음은 한 캠퍼스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얻어질 때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한 세대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학생자원선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모토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사라 배리 수녀를 포함하여 북미에서 온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갔습니다. 이사무엘 박사님과 초기 UBF 지도자들은 "성경한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혀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온 세계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서 있는 모든 캠퍼스는 변화되어 한 나라의 복의 근원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통해 만민구원 역사가 우리 세대에 이루지는 비전을 봅시다. William Carey 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1 세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세대적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새 시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세대간 사역을 격려하는 것이 또한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모토는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함께 일하라"일 것입니다. 세계대표로 선정된후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윤모세, 김모세 목사님 등 많은 스태프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했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함께기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엄청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는 몇몇 성숙한 종들께 앞으로 4년 동안 저와 함께 섬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분들은 박헨리 선교사(부세계대표), 서요한 선교사(국제 코디네이터), Teddy Hembekides 목사(북미 코디네이터), Mark Vucekovich 목사(시카고 UBF 디렉터), 김다윗 선교사(세계선교부장), 서어거스틴

선교사(교육부장), 조에스라 선교사(온라인 포럼 부장)입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ISBC 2023 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김 갈렘 목사님(세계선교부장)과 이요한 목사님(북미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좋은 시작이다.

한국과 북미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본부 사역은 모든 선교 분야의 리더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제 집행 위원회(International Executive Board)가 우리의 전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기 위해 더 자주 함께 모이도록 초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대륙 리더들과 함께 협력하여 차세대 리더들을 북돋우고 그들의 영적 발전과 사역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UBF 지부들을 광범위하게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아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7 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후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4 개 지역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현지 리더들을 더 힘있게하고 지원하며 기도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60 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계캠퍼스 선교의 개척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도시와 캠퍼스가 UBF 선교사와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선교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의 ISBC 2023 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실 수 있는 모든 국가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선교사들과 국가 리더들을 위한 특별 리더 수양회와 젊은 세대들을 위한 비전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효과적인 온라인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사역자들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7 에서 하신 말씀 에는 경고와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세계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잡으려면 영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악의 세력은 자유주의, 국가민족주의, 인본주의 등을 통해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유혹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진리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복음 진리를 붙잡고, 삶과 죽음의 문제로 세계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각 나라마다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과 방언을 아우르는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4 년 동안 세계대표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UBF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항상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2.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3. 이 세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캠퍼스와 나라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4. 다음 세대 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해
5. ISBC 2023: '그의 영광'
 - A.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 B. 그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과 영과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 C. 그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넘치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